

###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5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47:1-9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43장(새 40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 128번(스크린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 받은 주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를 예수님게로 이끄셔서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십자가를 떠나 세상을 좇아가는 변질된 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표적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고전9:27; 갈 5:16-26 ..... 인도자
- 찬양(Anthem) ..... 찬양대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자기부인(6) -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 봉 헌(offering) ..... 369장(새 218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219장(새 540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4. 이성구목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3월 4일)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겉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말씀묵상〉 갈라디아서 5:16-26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 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 념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 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 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6-18절) 나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2.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각각 어떻게 나타납니까?(19-23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 입니까?(24-26절)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롬 8:9). 그래서 회개를 통한 구원과 성령을 받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요 3:3,5).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하는 종교적 관례가 어느샌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Church members)을 양산할 뿐 진정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독려하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이 지속되고 있고, 교인들은 거기에 참석하는 것들로 나름대로 신앙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정작 삶의 터전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인간됨을 쓰며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선이나 기만적인 행동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를 확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라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욕심을 넘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에 그에 따른 열매들을 보게 되며(마 7:15-20), 그것으로 인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요일 3:24).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만을 나의 진정한 구주와 왕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